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 김민수 (본회 조사팀 과장)

1. 머리말

작년 상반기까지 고공행진을 하였던 국제유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나, 작년말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하여 올해 5월 이후에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속에 세계 경제지표 또한 개선되어 세계 각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 역시 하락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음에 따라 국제 상품시장 역시 동요를 일으키며 전반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계경기의 회복세 여부는 원자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석유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세계 석유 수급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제 곡물가격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유한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원으로써 바이오 연료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미국과 브라질, EU 등 여러 나라들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곡물 특히 옥수수나 대두 등이 주원료로 사용된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산업용(바이오 연료용) 국제곡물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옥수수나 대두의 국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현재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바이오 연료용 곡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옥수수, 대두박 등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배합사료 업계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의 흐름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료협회 조사팀에서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유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

(1) 현황

국제유가(WTI)는 지난 해 7월 14일 최고 점인 145.49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22일에는 31.12달러까지 무려 79% 급락하였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올해 5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 12일 현재 72.04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급락하였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외부 시장의 변화 특히 달러화의 약세 영향 및 원유 선물에 대한 투기 자본의 유입 증가와 더불어 펀더멘털적인 요소로서의 원유 공급 감소 및 석유 수요 증가 등이 있다. 상승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에

서 상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2)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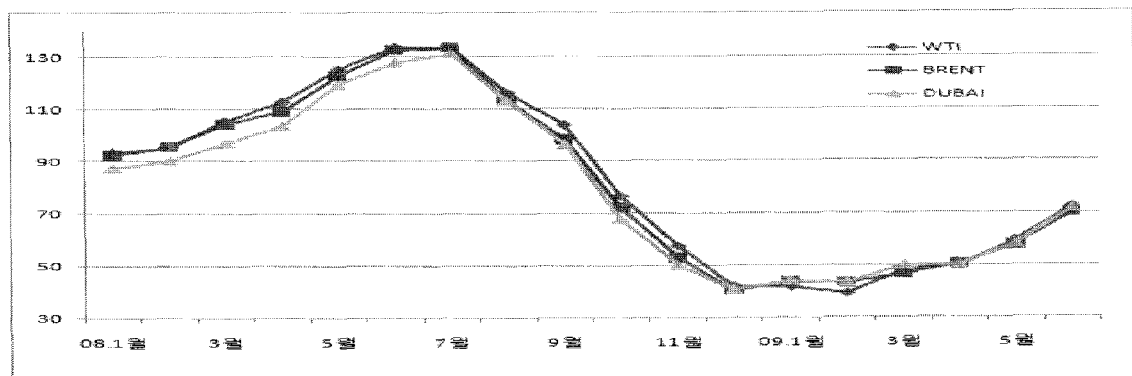
1) 외부 시장의 영향

달러화와 국제유가는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세계 주요 증시 또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고수익 위험 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려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 반면,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6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거래 매수량은 전주대비 4.9백만 배럴 증가하여 순매수는 40.12백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당일 WTI

〈월평균 원유가 추이〉

(단위 : 달러/배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최근월물 가격은 62.45달러로 전주대비 4.7% 상승하였다. 또한 NYMEX 비상업자금의 원유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3~4월 중 평균 3,811계약에서 5월 19일 현재 35,237계약으로 급증하는 등 원유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펀더멘털적인 영향¹⁾

공급적인 측면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감산과 비OPEC 석유산출국들의 생산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OPEC은 3차례에 걸쳐 총 420만배럴의 감산을 결정하였고, 감산이행률 또한 높아 최근 생산량이 2003년 초반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노르웨이, 멕시코, 영국, 캐나다 등 비OPEC 석유산출국의 생산량도 유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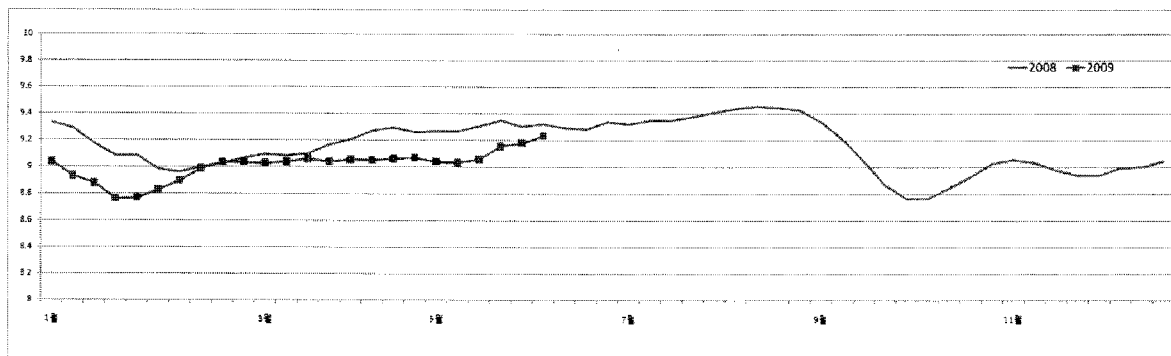
발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비OPEC의 생산증가율이 2008년에는 -0.4%에서 2009년 중에는 -0.6%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산유국의 지정학적 위험 증대, 미국 정제시설 화재 등도 공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과 미국의 석유수요 증가 영향이 국제유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중국은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을 2월 이후 큰 폭으로 늘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는 경기부양책과 원유 비축량 증대 정책 등에 주로 기인하며, 중국 정부는 현재 40일 수준인 비축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도의 경우도 인도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인하여 자

〈미국의 휘발유 수요〉

(단위 : 백만배럴)



자료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1)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9-41호 “최근 국제유가 상승요인과 향후 전망” 참조

동차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수요 증가로 인하여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고가 감소하였다.

3. 향후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되고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국제유가는 현재 수준 보다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면 다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적신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가 급등을 예고하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85달러에 도달한 후 내년에는 95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알제리 에너지 장관은 현재 70달러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내년 하반기에는 배럴당 90달러 근처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국제유가가 향후 1~2년내에 100달러를 웃돌며 2007-2008년과 같은 급등세가 재현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실효를 거둘 경우, 글로벌 경기 하강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세계 석유 수요 감소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

이 유가 상승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펀더멘털 개선 없이는 유가 상승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OPEC은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 생산쿼터를 유지하면서 회원국의 엄격한 감산이행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고,²⁾ 비OPEC도 유전 노후화,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획기적인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적인 면을 고려하면 국제유가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빨라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에서 벗어나 원유나 곡물 등의 상품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고유가 재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크다. 경기 회복과 함께 원유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 등도 수요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 IEA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OPEC의 감산 이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PEC의 3월 감산 준수율은 약 83%(OPEC의 현 생산목표 수준은 2,485만 배럴이며,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1국 3월 생산량은 2,557만 배럴을 기록) 수준이 될 것이다.